

[1유스 투데이(YOUTH TODAY) 1952 년 7 월호]

1952-07-06

### <37,000 마일(약 59,546 킬로)의 모험>

사진: 전도자 스완슨(Swanson, 오른쪽)과 <sup>2</sup>아삼(Assam) 지역의 선교사 <sup>3</sup>루벤 홀름(Reuben Holm)

"호랑이 사냥이라니!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되겠는걸." 모험적인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전도자 에버렛 스완슨은 생각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들렸지만, 그 반대로 호랑이가 그를 잡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베테랑 선교사인 <sup>4</sup>윌버 설리(Wilbur Sorley)에게 자신을 맡기고 거친 코끼리의 등에 올라 정글을 헤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와 호랑이는 정글의 친구이므로 이곳 탐험을 위한 가장 안전한 운송 수단입니다.

그들은 근처에 소를 미끼로 묶어두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그곳에서 밤을 새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끼로 소를 근처에 묶어두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그곳에서 밤을 새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날 밤 순회 설교자를 맞이할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짜릿한 모험심으로 시도했지만, 호랑이를 잡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호랑이 양탄자가 스완슨의 집을 우아하게 장식하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이 잡은 것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스완슨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6 개월간의 세계 순회 동안 약 5,000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여행을 떠난 이유입니다. 호랑이 사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

<sup>1</sup>유스 투데이(YOUTH TODAY): 미네소타주 브레이너드(Brainerd)의 코브넌트 출판사 & 침례교총회 출판사(Covenant Press and Baptist Conference press, 5750 N. Ashland, Chicago 26, Ill)에서 매월 주간으로 발행한 간행지.

<sup>2</sup>아삼(Assam)주: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주(<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82%BC%EC%A3%BC>).

<sup>3</sup>루벤 홀름(Reuben Holm, 1906~2000): 미국 침례교 소속 선교사로서 인도 아삼(Assam) 지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https://libraries.mercer.edu/archivesspace/repositories/2/archival\\_objects/5286](https://libraries.mercer.edu/archivesspace/repositories/2/archival_objects/5286)).

<sup>4</sup>윌버 설리(Wilbur Sorley, 1917~2002): 미국 침례교 소속 선교사로서 1948~1975 년 인도 아삼(Assam) 지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https://www.findagrave.com/memorial/55664747/wilbur-stanton-sorley>).

이 감동적인 결과에는 알래스카, 일본, 한국, 필리핀 제도, 인도, 아프리카, 아삼(Assam), 팔레스타인, 이집트 사람들이 포함되었으며, 그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의 불교 가이드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히말라야산맥의 7,000 피트(약 2,134 미터) 높이에 있는 인도의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티베트 공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최전선에서 <sup>5</sup>죽의 장막(Bamboo Curtain)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비행기, 지프차, 소달구지, <sup>6</sup>유개차(boxcar), 코끼리, 낙타를 타고 32 개국을 여행하면서 머리칼이 쭈뼛 설 만큼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전방으로 가는 길에 공산주의 게릴라 무리와 마주친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유개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는데, 몹시 추운 날씨 속에서 14 시간이라는 끔찍하게 느린 여행길이었습니다.

차 안에 세 명의 장교가 타고 있었는데, 한 장교가 "전방에 가 보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총회 목사는 그게 좋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었는데, 그 제안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민간인이 최전방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시카고로 돌아온 후 그는 <sup>7</sup>웰컴 트래블러스(Welcome Travelers)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경로에 대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스완슨은 시카고에 있는 아내와 네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게릴라와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그것은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sup>5</sup>죽의 장막(Bamboo Curtain): 동아시아,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 국가와

동아시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자본주의 및 비공산주의 국가 사이의 냉전 정치적 경계를 이르는 말([https://en.wikipedia.org/wiki/Bamboo\\_Curtain](https://en.wikipedia.org/wiki/Bamboo_Curtain)).

<sup>6</sup>유개차(boxcar): 방수 포장되고 측면에 미닫이문이 있는 화물차. 기상 환경과 도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화물을 운반한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5389&cid=49068&categoryId=49068>).

<sup>7</sup>웰컴 트래블러스(Welcome Travelers): 1952~1955 년 시카고에서 방영된 TV 프로그램(<https://www.imdb.com/title/tt1753104/>).

한국 경비병과 운전기사와 함께 군복을 입고 우편 트럭을 타고 전방으로 출발했습니다. 높은 산길에서 그들은 갑자기 완전히 무장한 10 명의 병사를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오, 오!" 운전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올 게 온 것 같군요."

겁에 질린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동안, 운전기사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높여 절벽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풀려난 게릴라 5,000 명이 한국의 산악 지역을 돌아다니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 및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중에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전방에 도착한 것에 감사하며 그는 군목과 군인들의 환영을 받았고,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동안 지프를 타고 다니며 이틀 동안 군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는 것은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은 총회의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방문한 유일한 침례교 총회 목사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센트럴 애비뉴(Central Ave) 침례교회에서 6 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6 개월 간의 파란만장한 여행을 통하여 전 세계로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래스카, 일본, 필리핀, 홍콩, <sup>8</sup> 포르모사(Formosa)만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의 여행사는 "99 달러만 더 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그에게 더 넓은 사역으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회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오클랜드에 있는 총회에 참석한 후, 시애틀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가족을 남겨두고 알래스카 앵커리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총회 본국 선교 위원회(General Conference Home Mission Board)의 선교 기업인 마운틴 뷰(Mountain View)와 스페너드(Spenard)에서 한 달 동안 모임을 진행하고, <sup>9</sup> 십대선교회(YFC) 집회에서 설교했으며, 알래스카에서는 70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

<sup>8</sup>포르모사(Formosa): 대만의 별칭(<https://namu.wiki/w/%ED%83%80%EC%9D%B4%EC%99%84%EC%84%AC>).

<sup>9</sup>십대선교회(YFC, Youth for Christ):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운동으로 1940 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십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및 월드비전(World Vision)을 포함하여 100 개 이상의 관련 기독교 단체를 설립했다([https://en.wikipedia.org/wiki/Youth\\_for\\_Christ](https://en.wikipedia.org/wiki/Youth_for_Christ)).

8 월 3 일에는 일본으로 날아가 십대선교회(YFC)와 두 달간 전도 활동을 하고, 일본에 있는 모든 총회 선교사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요코하마의 이동식 부대에서 "간섭자"(통역사가 설교 중에 자주 끼어들어서 장난스럽게 붙여진 이름)라고 불리는 통역사의 통역을 받으며 설교하고 찬양하던 그는 100 명 가까운 사람들이 길거리의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 폭발의 중심에 세워진 사찰의 주지 승려 앞에서 증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승려는 기드온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으며(많은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처도 믿는다!"라며 모순된 고백을 했습니다.

스완슨은 도쿄 지역에서 가장 큰 신사의 대신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조상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전도자의 가장 위대하고 행복했던 경험 중 하나는, 교토에 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에서 한 불교 가이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입니다.

그들은 두 명의 십대선교회(YFC) 지도자와 함께 관광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일본에서는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10 명의 불교 승려가 검은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징을 울리며 두루마리 경전을 읽는 거대한 제단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종교 활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던 가이드는 곧 "그러나 성경은 이리이러하게 말씀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스완슨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그러한 이교도 숭배의 오류를 보여 주면서, 1 시간 15 분 동안 그와 변론했습니다. 가이드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스완슨은 도쿄에 있는 두 침례교 교회에서 설교했고, 논을 따라 흐르는 개울에서 거행되는 침례식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고, 우연한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지 4 일 후 그는 누군가가 휘파람으로 찬송가 <sup>10</sup>“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복된 선율의 목소리를 찾던 그는 한 백인 남성을 발견했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온 에버렛 스완슨입니다. 당신이 찬송가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를 휘파람으로 부는 소리를 듣고, 기독교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라고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sup>11</sup> 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이었고, 그는 단 하루만 도쿄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흥미롭고 순간적인 만남을 통해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와 연락을 취했고, 그는 스완슨이 한국에 있는 동안 유급 숙박과 보살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런 보장 없이는 아무도 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심지어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두 달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소통들 덕분에 그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30 일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완슨은 말씀에 굶주리고 갈망하는 한국인들이 가득한 가장 큰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북한 전도사, 목회자, 기독교인의 80%가 2 차 세계대전 이후 살해됨) 때문에 전적으로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는 장교들이 훈련 중인 군사 학교에서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이 그룹에서 약 2,860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한 달에 평균 4,000 명이 개종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백인을 본 적이 없는 높은 산악지대에 사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완슨은 "한국에서의 엄청난 반응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 병원, 교회 등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위로가 되는 복음 메시지에 대한 열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닐라에서 십대선교회(YFC) 청년 집회와 극동 복음 방송국(Far Eastern Gospel Broadcasting Company)의 5 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설교했습니다.

---

<sup>10</sup>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 새 찬송가 243 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sup>11</sup>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한국명: 반피득, 1918~2012): 1949 년 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담당하였으며, 1954 년 학교법인 경안학원(경안고·경안여고·경안중·경안여중)을 설립했다(<https://m.kmib.co.kr/view.asp?arcid=0006331366>).

그리고 엄청난 더위(북위 8 도) 가운데 세부(Cebu)섬의 보고(Bogo)에서는 총회 선교사들과 함께 좋은 사역과 응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에는 일곱 번의 예배에서 설교했습니다.

포르모사(Formosa)에서 이틀 동안 그는 <sup>12</sup>장제스(Chiang Kai Chek)의 목사인 첸 박사(Dr. Chen)와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군인들에게 설교했고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 머물렀던 홍콩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죽의 장막까지 갔습니다.

중공(Red China)까지 30 마일(약 48 킬로)을 이동하고 있던 그가 사진을 찍자 갑자기 경비원들이 "저 남자를 막아! 막아!"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망원 렌즈로 빨간 깃발을 포함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11 월 한 달 동안 인도를 방문하여 저명한 선교사 <sup>13</sup>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수년간 설교하고 사역했던 캐리 침례교회(Carey Baptist Church)에서 세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앤과 <sup>14</sup>애도니럼 저드슨(Ann & Adonirom Judson) 부부가 침례를 받았던 침례당에서 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티베트 공주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바친 곳은 히말라야의 높은 곳에 있는 <sup>15</sup>마운트 헤르몬 학교(Mt. Hermon School)의 다르질링(Darjeeling)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3 일 동안 전도를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

<sup>12</sup>장제스(Chiang Kai-shek, 1887~1975): 중국의 독재자, 혁명가, 정치가, 군인.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기의 제 2.4 대 국민정부 주석이자, 헌정 실시 이후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 역임하였으며, 크리스천이었음(<https://namu.wiki/w/%EC%9E%A5%EC%A0%9C%EC%8A%A4>).

<sup>13</sup>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침례교 선교사이며 번역가, 사회개혁가, 그리고 문화 인류학자로, 개신교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린다([https://ko.wikipedia.org/wiki/%EC%9C%8C%EB%A6%AC%EC%97%84\\_%EC%BA%90%EB%A6%AC](https://ko.wikipedia.org/wiki/%EC%9C%8C%EB%A6%AC%EC%97%84_%EC%BA%90%EB%A6%AC)).

<sup>14</sup>애도니럼 저드슨(Adonirom Judson, 1788~1850):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침례교 선교사로 미얀마에서 거의 40 년 동안 사역했음([https://ko.wikipedia.org/wiki/%EC%95%A0%EB%8F%84%EB%8B%88%EB%9F%BC\\_%EC%A0%80%EB%93%9C%EC%8A%A8](https://ko.wikipedia.org/wiki/%EC%95%A0%EB%8F%84%EB%8B%88%EB%9F%BC_%EC%A0%80%EB%93%9C%EC%8A%A8), [https://en.wikipedia.org/wiki/Adoniram\\_Judson](https://en.wikipedia.org/wiki/Adoniram_Judson)).

<sup>15</sup>마운트 헤르몬 학교(Mount Hermon School): 1895 년 영국 감리교 성공회의 Emma L. Knowles 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벵골주 다르질링에 위치한 기독교 기숙학교([https://en.wikipedia.org/wiki/Mount\\_Hermon\\_School,\\_Darjeeling](https://en.wikipedia.org/wiki/Mount_Hermon_School,_Darjeeling)).

총회 선교사인 <sup>16</sup> 헬렌 버그포크(Helen Bergfalk)가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었던 또 다른 음악 교사는 부흥 중에 놀랍게 개종했습니다.

그는 아삼(Assam)에서 3 주간 지내면서 노스 बैं크(North Bank)의 총회 선교 사역과 파란만장한 호랑이 사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와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며, 그들 가운데 12 명의 개종자를 얻고 기독교인이 16 명만 있는 원시 부족에게 설교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총회 선교사들과 함께 잠깐 들른 에티오피아에서는 그의 설교로 16 명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런던을 잠시 방문한 후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넜고, 엄청난 폭풍으로 인하여 보스턴 대신 17래브라도에 도착하면서 파란만장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모험은 하나님을 위한 진취적이며 열매가 가득한 모험이었습니다. 끝.

※ 참고: 발행 및 편집인 정보(Pg. 8)



유스 투데이(YOUTH TODAY)는 미네소타주 브레이너드(Brainerd)의 코브넌트 출판사 & 침례교총회 출판사(Covenant Press and Baptist Conference press, 5750 N. Ashland, Chicago 26, Ill)에서 매월 주간으로 발행하는 간행지입니다. 편집장: 데이비드 C. 올슨(David C. Olson).

<sup>16</sup> 헬렌 버그포크(Helen Bergfalk, 1912~2009): 미국 침례교 총회 소속 선교사로서 평생 인도에서 기독교 교육사역에 헌신했음([https://www.presspubs.com/helen-e-bergfalk/article\\_11733b6b-1466-5c42-a21e-7d4fc87f4d8e.html](https://www.presspubs.com/helen-e-bergfalk/article_11733b6b-1466-5c42-a21e-7d4fc87f4d8e.html)).

<sup>17</sup>래브라도(Labrador): 캐나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주(<https://en.wikipedia.org/wiki/Labrador>).